

'느림과 행복' 전주가 답하다

전주 세계슬로포럼 슬로어워드 개막

전주시는 1일 오전 전주한옥마을 풍락헌 앞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 슬로 전문가들과 슬로시티 철학을 주제로 미래 비전과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제3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의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알렸다.

올해 전주 국제슬로포럼·슬로어워드의 본행사는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라는 슬로건과 '슬로니스와 행복'을 주제로 2일과 3일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피에르 조르조 올리베티 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총장은 "2020~2025년 사이에 세계는 인구와 환경, 기술, 윤리 등 네 가지로 재단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슬로시티 운동도 환경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혁신, 국민과 정치인간의 공동의사결정 프로젝트로서의 책임감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레데리크 그로 프랑스 파리제12대학 교수는 "느림의 미학인 '걷기'가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영감을 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순대원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은 "전주 세계슬로포럼&어워드는 전세계 슬로시티와 슬로운동가들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전주시민들에게는 슬로시티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1일 오전 전주한옥마을 풍락헌 앞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 슬로 전문가들과 슬로시티 철학을 주제로 미래 비전과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제3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의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알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세계 유일의 도심형 슬로시티로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철학인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슬로운동

을 이끌어가는 슬로시티의 수도가 되기 위해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서 "슬로운동의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온 전 세계 슬로시티 활동가들의 철학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국제포럼에 국내 슬로시티 지자체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국제슬로시티 연맹이 세계 252개 슬로시티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국제슬로시티 어워드'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도시에게 주어지는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상(Chiocciola Orange 2019)'을 수상,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송효철 기자

무형유산의 과거와 현재 영상으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성료

2019 국제 무형유산 영상 축제(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이하 IIFF)가 지난 9월 29일 성황리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무형문화 다시 보기'를 주제로 국립국악원,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한국문화재단, 한국영상자료원, KAFI, EBS,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등의 참여가 돋보였다.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관계자는 "국민에게 친숙한 매체인 영상을 통해 남녀노소, 국경을 넘어 무형유산의 가치를 나누고, 의미를 이어가는 역할을 묵묵히 지속해 갈 것"을 약속했다.

관련 문의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운영사무국(☎ 063-220-8253 / 홈페이지: iiff2019@naver.com)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포함 3곳만 운영"… 개혁안 지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피의사실공표 점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관련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토록 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가 불가피하며, 나머지 2개 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량을 살펴보고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면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간 내외부적으로 비판이 많이 있었고, 먼저 검찰 차원에서 파견검사들을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 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개소환, 포도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과 수사 관행, 실태 전진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업무수행 방식에서도 '인권 보장'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와 공판, 형집행정지 전면에 걸쳐 인권을 보장하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 결정을 충실히 받도록,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병원 찾는 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최선"

예수병원 진료협력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예수병원 진료협력센터가 1일, 예수병원 로비로 확장 이전해 개소식을 갖고 진료의뢰·회송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예수병원 진료협력센터가 1일, 예수병원 로비로 확장 이전해 개소식을 갖고 진료의뢰·회송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예수병원은 지난 8월 1일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진료의뢰·회송 시범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복지부의 진료의뢰·회송 사업의 주요 목표는 1, 2, 3 차의료기관이 각 역할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을 찾는 것이다. 예수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잘 수행해, 예수병원을 찾는 분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의뢰·회송 시범 사업이란 의료기관간 진료에 필요한 환자를 '의뢰'하고 급성기 및 중증 진료가

마무리된 환자를 '회송'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 협력진료를 통한 진료의뢰·회송의 질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출

림 현상을 완화하는데 있다. 예수병원은 대외협력부(부장 천민우) 산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491개 예수병원 협진병원, 지역 동문병원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료의뢰와 회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홍산초 찾아 암예방 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초등학생들의 암 예방 생활습관을 정립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인 '암 예방 스쿨어택'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복지역암센터가 주관한 이번 암 예방 스쿨어택은 중장년 및 노년층에 비해 암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령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암 예방 생활습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주홍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 암예방 수칙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시작으로 암을 예방하는 생활수칙 동영상 상영, 소아청소년이 지켜야 할 7가지 암 예방 수칙 낭독, 암 예방 언어유희 퀴즈, 암 예방 컬러링 북 색칠하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

전주시가 고용서비스 품질과 고용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고용노동부 2019년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자율시정사업의 일환으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협조를 받아 전주시 직업소개사업소 20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전문 노동법 강사진이 △구인, 구직자 권의 보호를 위한 기본 준수사항 등 △직업소개제도 및 직업윤리의식 △직업정보관리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시는 이날 교육에서 직업소개사업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구인·구직 상담과 기업체에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재확인시키고,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과 노동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분양가 안정책 "효과 있다"

심사위, 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심사 결과

시행사 요청가의 4분의 3수준으로 권고

전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한 전주시 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 상승폭을 낮췄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설 한화포레나 주상복합(614세대, 10월 분양 예정)의 분양가를 3.3㎡당 943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가심사위원들이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와 물가지수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분양가 상승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당초 시행사가 요청한 분양가인 1248만원과 비교하면 305만원(24.42%) 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심사에 앞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에코시티 현장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시는 분양가 심사 결과를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에코시티 입주자모집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웃돈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주택전매 제한을 1년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 시·구·경찰·공인중개사협회와 특별단속반을 편성, 입주자 계약기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른바 '뺑뺑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실공단

4대폭력 예방교육

전주시실공단(이사장 정성환)은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화산체육관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2차례 진행돼 필수근무인력을 제외한 직원 대부분이 교육에 참석했다.

김혜영 군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현장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족폭력 등 4대 영역과 관련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성환 이사장은 "즐거워 일터, 활기찬 직장, 행복한 가정을 위해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효철 기자

안전하고 신선한 '전주푸드' 랍니다

전주시, 5일 종합경기장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전주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기로 했다. 한 직거래장터이다.

시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5일 제26회 시민체육대회가 열리는 전주종합경기장 외부 문화부스에서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연이은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주푸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고려자연식품(주) △(주)강동오케이 △(주)다산농부 △(주)로즈피아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등 전주시역

농식품기업들도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특색 있는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특히 이날 직거래장터에서는 고구마와 양파, 콩나물 등 신선농산물과 전주 지역 가공식품을 시중 유통가의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일금액이 이상 구매할 경우 전주농산물 생산농가에게 증정하는 등 판매촉진 행사도 마련된다.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판매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들에게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고 애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